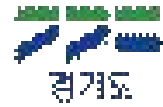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4. 2.(화) 배포	사진	1	자료	0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 (생활안전팀)	과 장	이기봉 (031-8021-0300)				
		팀 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용인소방서, 'KT위성관제센터' 재난 대응 현장안전컨설팅 실시

- 국가 중요시설 재난으로 인한 대형피해 경각심 고취...



△ (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일 처인구 운학동 소재 KT용인위성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테러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인위성관제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통신 관제 센터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발사한 우리나라 최초 위성통신 ‘무궁화 1호’ 관리를 위해 1994년 11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소재 대지 4만5726평 규모로 개국했다.

우리나라 위성 시대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병력을 포함한 수많은 기관이 동원되어 통합방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용인소방서는 시설 특성상 테러 및 화재 등에 의한 재난 발생 시 범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화재안전의식 함양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체 운영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센터시설 소방 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 매뉴얼 컨설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험 요소 실태 점검 ▲자위소방대 구성으로 역할별 초기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위성관제센터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관계인은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맞춰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